

♣ 오늘의 말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눅 14:14).



제목: 자비로운 이에게 복이 있으라 !(Blessed are the Merciful)/
미국 보스턴 알링턴街 교회당 스테인드글라스, Tiffany(1848-1933) 제작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이번주는
2층 세미나 1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요즘처럼 돈과 재미로만 인생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해명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기쁨과 평화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무(無)로부터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고유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며,
마지막 때 놀라운 능력으로 완성하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배드려 마땅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우주의 저 끝과 지금 여기의 작은 세계까지,
존재하다가 사라진 것들과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들까지 포함하여
이 세상 만물에 골고루, 그리고 확실하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믿음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이 인생의 최대 목표로 주입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 그런 삶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약화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에 휘둘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나 거기에 길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바로 이 사실과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전통에 따라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뢴 모든 것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120장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 다 함께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헛소문으로 산만해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세계 교회력의 순서에 따라서 받들어 읽는 사람과 해석하여 전하는 사람과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예레미야 2: 4-13 ... 고중흥 집사

성서교독 시편 81: 1, 10-16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우리의힘 하나님께 기쁜노래 드리어라 우리조상 하나님께 큰환호성 외치어라
-이집트서 내가너희 구해내지 않았느냐 나는너희 주님이요 하나님이 아니더냐
 입을크게 벌리어라 내가채워 줄것이라
-그렇지만 내백성은 나의말을 듣지않고 이스라엘 나의뜻을 따라행치 않았도다
 나는그들 고집대로 나의명령 벗어나고 저들하고 싶은대로 그냥버려 두었도다
-이스라엘 내백성이 나의말만 들었다면 내가가라 하는길을 순종하여 따랐다면
 내가당장 그들모두 원수들을 쳐부수고 내가당장 손을들어 그대적을 쳤으리라
-나를미워 하는자들 내앞에다 무릎꿇려 그들형벌 영원토록 계속되게 했으리라
 또한내가 기름진밀 너희에게 주었겠고
-바위에서 따낸꿀로 배부르게 했으리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말듣지 않았도다

제2독서 히브리서 13: 1-8, 15-16 ... 고중흥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4: 1, 7-14 ... 고중흥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복 있는 삶이란? ... 이춘우 목사

설교후기도 ... 다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따르기 어려운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려거나 갓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의 삶이 축제라는 사실을 영혼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4장 (오 만세 반석이신)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2019년 창조절 첫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이제 끝났으니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에서의 삶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며, 때로는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 예배 후에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 9월 15일은 추석 연휴 대관 문제로 예배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헌금 705,000원 (주일헌금: 505,000원 통장헌금: 200,000원)
(2019/8/25)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8월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주일헌금	1주	352,000	담임목사 교통비	300,000
	2주	250,000	강사비	900,000
	3주	462,000	대관료	332,640
	4주	505,000	주보비	40,000
			교육비	70,000
통장헌금		450,000	구제비(채움누리학교)	50,000
선교헌금		100,000	선교비(뉴스엔조이,새물결플러스)	100,000
			간식비	78,500
수입계		2,119,000	지출계 1,871,140	
*수입-지출	(247,860)		전월이월액	2,629,449
			현 잔액	2,877,309

9월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창조절 1주	9/1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고중흥	이기령
창조절 2주	9/8	2층 세미나1실	정용섭	윤동희	양혜선
창조절 3주	9/15	추석 연휴 휴관			
창조절 4주	9/22	4층 아트컬리지3실	박재진	신창식	박수진
창조절 5주	9/29	4층 아트컬리지4실	이춘우	이유선	윤혜정

8월 25일 설교 “안식, 해방, 연민” 발췌

성경은 주체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세상의 잘못된 억압구조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안식일 개념이 구약성경의 두 사건에 기원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와 출애굽 해방입니다. 두 가지는 깊이 연루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은 해방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해방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팔 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에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선포는 안식일의 본질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논점은 이 여자의 치료를 하루 늦출 수 없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십팔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루 참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루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바로 이 대목에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 놓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곧 해방되어야 할 인간에 대한 ‘연민’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한 여자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 여자는 오늘도 안식일을 맞아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을지, 죽고 싶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지, 예수님이 설교한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뭔가 기대했을지, 본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절박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익숙한 풍경이라서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하루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저 깊은 곳이 뜨거운 사람은 조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에 철저한 냉소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 기자들은 자주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기독교의 2천 년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연민은 슬픈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은 다음에 밀려드는 슬픈 감정만이 아닙니다. 더 크고 깊은 영성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불쌍합니다. 못난 사람도 불쌍하고 잘난 사람도 불쌍합니다. 반사회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탈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베도, 트럼프도, 김정은도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하니 악을 행해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연민이 자리합니다. 철부지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십팔 년 된 장애인이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회당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남북 분단 체제가 바로 장애인이 아니겠습니까. 수능 점수에 목을 매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도 역시 십팔 년 된 장애인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 그 당사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당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반 회중들은 그날도 평범하게 안식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십팔 년 동안 사탄에 묶였던 사람을 그 매임에서 푸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며, 아직 아니라면 앞으로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부끄러워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에 쫓겨서 바쁘게만 지내셨습니까?